

8. 성전에 올라가심.(2011. 8. 2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실과 그 주변 사실들을 복음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눅2:42~50] 예수께서 열두 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는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전해오는 대로는 19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온 가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가족도 해마다 유월절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해마다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2살에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면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2살은 성인식을 하는 연령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월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면 성인식을 위한 행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나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공개토론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가 동행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아이 예수가 없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 내외는 엄청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소년 예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잠자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되돌아서 일행중에서부터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행 중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듬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사흘만에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소년 예수가 유대인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안심하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눅2:38) 그때 소년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2:49)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대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다음 구절에 기록했습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친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몇 곳에 예수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리아가 그 사건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눅2:18,19) 또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듣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눅2:33) 그리고 눅2:51에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탄생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특히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현몽한 천사의 일부러 침례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한 말, 목자들의 방문,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 등등. 이런 사실들을 두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을 들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마리아는 사건 전반을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계속해서 생각하여 그 의미를 되새겼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 탄생을 전후하여 천사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들이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사실 등은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거듭 상고해 보게끔 하였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야라는 자의식은 일찍부터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살 때 그 사실을 처음으로 입으로 나타내었지요.

예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성소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또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훗날 예수께서는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요한이 그것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상을 깨우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된 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 다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6:16~7:1)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악하게 하는 일이나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처하는 집을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재료로 집을 짓고 꾸미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쾌적한 상태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더럽고 연약하고 병들었다면 기뻐하실는지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우리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환경 집이 되도록 깨

꾸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합니다. 몸은 음식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포를 만드는 것은 주로 단백질이 아닙니까. 그 단백질이 친환경 단백질이 되어야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환경 몸이 될 것입니다. 단백질뿐이겠습니까.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다 친환경 영양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임마누엘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전3:9~13)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금, 은, 보석이면 최상의 집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금은 참된 믿음,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을 상징합니다.(벧전1:7) 은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12:6)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우리 몸은 믿음과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보석들은 아름다운 성질, 성품을 상징합니다.

[잠24:3,4]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사람의 외모를 표상하고 방은 사람의 내면을 표상합니다. 즉 성질, 성품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진 인격,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집, 이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서 거기 계시면서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사상이 포함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12살 소년의 지혜에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예수께서 이루실 사명을 구상화하여 표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 예수는 그 선생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교사들은 소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방법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교육을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소년 예수가 똑똑하고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소년 예수가 질문을 지적하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임을 질문을 통하여 그 선생들에게 던지시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존심 문제였는지도 모르지요. 또한 성전봉사 내용이 메시야가

와서 것처럼 희생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의식에는 메시아가 영광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세계에 가장 강하고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여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가장 종말론적 사실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 같이 오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올바르게 깨달으려는 생각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시대 같이 느껴지거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듣고 그런가보다 하는 사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반드시 그 받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행17:11)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년 때에도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딸 나사렛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갈 때까지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를 받들면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눅2:51,52]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의 생활을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주장하는 말을 적은 어떤 책들이 이 기간 동안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불교를 연구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허구입니다. 그럴듯한 거짓 문서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18년 기간에 집에서 부모를 받들면 순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까지의 생활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목수인 요셉과 함께 나사렛 목공소에서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막6: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는 요셉을 목수라고 소개합니다.

[마13: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목수의 아들인 목수였습니다. 그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목수로 알 수 있도록 목수의 일을 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번 대패질하고 못질을 했다고 목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확실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사렛 집을 떠나 목수라는 말을 들을 수 없도록 18년이라는 기간을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로 탄생하시고 가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활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친히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어야 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서 성령의 주장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그 경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영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3:5,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으니 바로 영입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가르칩니다.

[롬8:8,9]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경향이 달라진 사람들이지요. [롬8:5,6]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히 있고 성실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사고방식이 그를 주장하며 그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굴복시키고 그 사고방식이 영적사고방식 일변도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며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 예수께서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개인들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딤후3:15)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심을 행하고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요2:16) 우리가 거듭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면 장사하는 사고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 같이 교회가 이런 영이 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사하는 내용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정말 영이 모인 영적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인지 의심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행사들이 장사하는 사고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

로 그것을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욕에 속하여 욕신의 소욕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지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겠다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영으로 사시는 지요. 오늘도 정말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